

번호: OP-J-002					
제 목	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특성에 관한 연구 Physician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Cesarean Section				
저 자 및 소 속	강지선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Ji-Seon Ka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Hosp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University				
분 야	의료관리 [의료보장/경제성평가]	발 표 자	강지선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본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을 실태를 점검하고, 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규명하여,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p> <p>방법: 년도별 제왕절개분만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2001년 1월에서 2003년 12월 입원진료분을 기준으로 연도별,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제왕절개분만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율은 2003년도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 1,345개소를 대상으로, 의사의 특성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율은 2003년도 분만이 발생한 의원급 요양기관(992개소) 중 연간 분만건수 50건 이상이면서 의사 1인이 근무하는 381개소를 기준으로 조사하면서 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 및 의료기관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제왕절개분만 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p> <p>자료 처리는 SPSS window version 10.0, SAS 9.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p> <p>결과: 전체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로 세계 최고를 나타내다가 2003년 38.2%로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규모가 제일 큰 종합전문 요양기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병원급 요양기관의 감소폭이 가장 많이 감소(3.4%p)하고 있다. 지역별 제왕절개분만율은 3년 연속 광주지역(28%대)이 가장 낮고, 강원지역(44%대)이 가장 높은 1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p> <p>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의 제왕절개분만 여부를 종속변수로, 산모의 연령과 의사의 일반적 특성 및 의료기관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의 특성에서는 의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문의 취득 후 년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기관 개원기간이 오래될수록, 서울에 소재한 출신학교일수록, 수련받은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특성에서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병상수가 많을수록, 산부인과 의사수가 많을수록, 개인기관보다는 공공기관일수록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p> <p>결론: 제왕절개분만율이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소비자요인보다는 공급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공급자나 의료기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으나, 제왕절개분만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 요인 등 다른 요인과 함께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p>					